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척추

논문제목 하경추부 신전손상의 예후 인자

영문제목 **Prognostic factors in extension injury of the subaxial spine**

발 표 자 박찬일

책임저자 송경진

저 자 송경진, 이광복, 박찬일, 최병렬

기 관 명 전북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주 예수병원 정형외과

**서론** : 하경추부는 외상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신전손상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간과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이 지연되어 신경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저자들은 신전 손상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한 진단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하경추부는 외상시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진단과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신전손상은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간과되는 경우가 있고, 단순방사선 사진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은 경우에는 진단이 지연되어 신경증상이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저자들은 신전 손상에서 예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인자에 대해 분석하고 적절한 진단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결과** : 연부조직의 손상 정도와 신경학적 손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p=0.033$ ) 후종인대 골화증이 있는 경우가 17명(8.9%), 없는 경우는 112명(59%)이었으며 두 군간에 신경학적 손상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p=0.01$ ). 척추관 협착증은 Pavlov ratio < 0.8 경우로 정의하였고, 협착증과 신경학적 손상의 정도와는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p=0.457$ ). 손상된 분절 수 및 손상된 관절 부위에 따른 신경손상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0.116$ ). 손상의 원인으로서는 교통사고 109례(57%), 낙상 32례(17%), 넘어짐이 19례(10%), 기타 30례(16%)였으며, 교통사고에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p=0.01$ ). 연부조직의 부종은 C3, C6 부위에서 측정하였고, 제3 경추 하연은 5 mm 이상, 제6 경추 하연은 15 mm 이상으로 증가된 경우 이상소견으로 간주하였다. 각각의 경우에 통계적인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다( $p=0.147, 0.887$ ). 남성과 여성 및 6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 비교했으나 두 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p=0.338, 0.213$ ). 퇴행성변화는 골극이 있는 경우를 조사하여 퇴행성 척추증 유무에 대하여 조사하였고, 이는 신경학적 손상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p=0.390$ ).

**결론** : 술 전 연부조직 손상이 심하거나 후종인대 골화증이 동반된 신전손상 환자에서 심한 신경학적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경손상이 동반된 환자의 초기 진단에 MRI/CT는 단순방사선 사진과 함께 반드시 필요한 검사로 생각된다. 또한 교통사고에 의한 신전손상에서 심한 신경학적 손상이 동반되므로 사고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운반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acknowledgment :

하경추 신전 손상, 예후, 연부조직 손상, OPLL, MRI